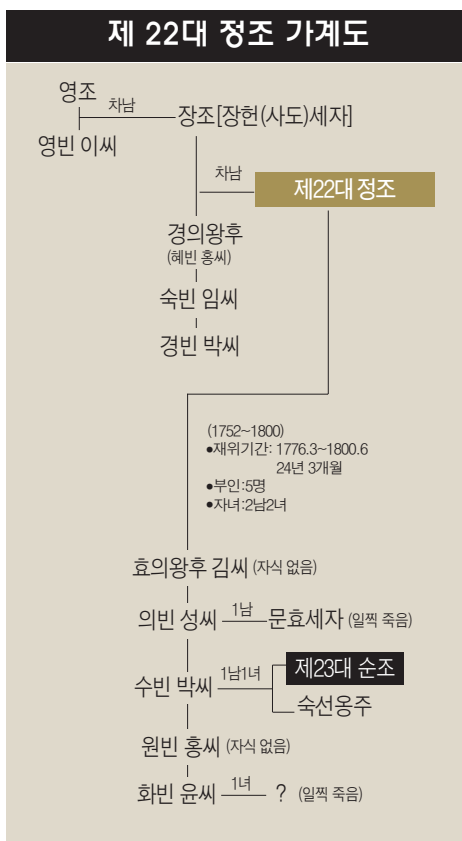


아버지 사도세자의 초라한 죽음 화려하게 복원

49 22대 정조, 효의왕후 - 용릉 (1)

정조 1752년~1800년(49세)
재위 24년 3개월
1776년 3월(25세)~1800년 6월(49세)



“정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화려한 즉위식을 마치고 처음 주재하는 어전회의에서 정조가 내뱉은 첫 번째 선언이다. 대신들은 경악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노론은 숨이 멎는 것 같다. 비단천의 깃자국을 확인한 연산군이 광란의 칼을 휘둘렀던 250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내면을 숨기고 살아온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결과가 어찌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금방이라도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내려왔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금 용릉에 앉은 이는 어제까지 세손이었던 인물이 아니라, 14년 전 좁은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질식사한 사도세자가 다시 살아나 있어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질식사한 후 세손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되었다. 세손은 이미 34년 전에, 10세로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살아야 했다. 영조는 수시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고 확인했다.

15년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친아버지를 찾았다. 양주 배봉산 기슭에 초라하게 묻혀 있는 사도세자를 세상 가운데로 끌어내는 순간이다. 당연한 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이전까지 사도세자라는 이름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온 나라가 연좌제에 걸려 있었다.

정조는 그 사슬을 풀기 시작했다. 즉위 열흘 후,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라 올리고 배봉산 기슭에 외롭게 방치된 무덤의 묘호를 영유원(永祐園), 사당은 경모궁(景慕宮)이라 높였다. 정조는 매년 영유원에 참배했다. 비로소 사도세자는 금기의 대상에서 국왕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고 세손까지 끌어내리려고 온갖 음모를 자행했던 무리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흥인한 등과 결탁해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화완옹주(靖조의 고모)의 양아들 정후겸을 귀양보내고, 화완옹주는 서녀로 강등시켰다. 흥인한, 흥상간, 윤양로 등도 제거했다. 영조의 후궁 속의 문



정조가 부친의 능을 참배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사진 왼쪽). 군복입은 정조.



최고 명당자리 수원 용복면에 사도세자 능역 조성 승하할 때까지 12차례나 참배 위해 현릉원 방문

씨의 작호를 박탈해 사자로 내쫓았다. 문씨는 할아버지의 후궁이었기에 목숨만은 보존해주려 했으나 대신들과 삼사(三司)가 거듭 상소를 올려 결국 사약을 내렸다.

정조의 가장 큰 고민은 외조부 흥분한의 처리문제였다.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이 흥분한이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었다. 형조판서 이계, 성균관 유생들까지 흥분한을 처벌해야 한다고 나섰다. 흥분한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군신상하가 편히 잘 수 없다고 주청했다.

그러나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 어머니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용서의 길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아버지 사도세자를 화려하게 복원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정조 13년(1789) 10월4일, 사도세자의 영구(靈柩)가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날이다. 비참하게 죽은 지 27년 만에 벌어진 화려한 행차다. 목적지는 수원 용복면(龍伏面)에 있는 화산(火山)이다. 지명조차 예사롭지 않다. 왕릉이 입지한 곳은 명당 아닌 곳이 없다. 택지할 당시 최고 명당을 찾았다. 물론 정성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정조가 아버지에게

한 지극정성을 누가 따르겠는가. 그래서 경기도 이전에 있는 세종의 영릉과 함께 국내 최고의 길지로 꼽히는 곳이 수원 화산의 용건릉이다.

“화산이 왼쪽으로 돌아 서북쪽(北方)으로 떨어져서 주봉우리가 되고, 서북쪽의 주산(主山)이 서북과 북쪽 사이(北方)로 내려오다가 북쪽(北方)으로 돌고, 다시 북동쪽(北方)으로 뻗어오다가 동북쪽(東方)으로 바뀌면서 입수(入首)합니다. 앞에 쌍봉이 있는데 두 봉우리 사이가 비었고, 안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구슬 같습니다. 형용 네 겹과 백호 네 겹이 에워싸 지세가 만들어졌는데, 훗(穴)이 맺힌 곳은 마치 자리를 깔 것처럼 평평합니다. 뻗어온 용의 기세가 700리를 내려왔는데 용을 보호하는 물이 모두 뒤에 모였으며 현무(玄武)로 입수했으니 천지와 함께 영원히 더할 수 없는 길지(吉地)입니다.”

당시 명성 있는 지관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용이 얹드린 곳(용복면)’이란 지명도 예부터 길지라는 증거다. 능역을 조성하는 작업도 남달랐다. 능지로 택지되면 민간의 집이든 모든 군밭 없이 헐거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백성들의 원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사도

세자의 묘를 이전하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이 아니라 축제(축제)야 한다. 민심이 즐거워야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헐거되는 민가에는 내 땅금을 내려 땅값을 넉넉하게 보상해주고 새 집 지을 자금까지 주었다. 전무한 일이나 이주하는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정조는 사도세자가 묻힌 곳을 현릉원이라 이름 짓고 이장 후부터 승하하기 전까지 열두 차례나 참배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동한다는 것이야 뉴스거리도 안 되지만 당시는 거국적인 행사였다.

여가를 따르는 인원이 6000명이 넘고 동원된 말(馬)이 1400여 필이다. 독섬에 때배를 엮어 한강을 건너고 말죽거리, 과천을 거쳐 수원 화산에 당도한다. 정조의 잦은 능행은 참배의 목적과 함께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여 노론 세력의 기를 꺾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능의 조성과 함께 정조의 머리속에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팔달산 아래가 큰 고을이 들어서기에 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현릉원이 있는 수원에 행궁을 설치하고 정조17년에는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수원에 화성 행궁을 건립했다.

화성 행궁은 모두 55칸이나 되는 최대 규모의 행궁이다. 이어서 현릉원과 행궁을 보호하기 위해 정조 18년 2월~20년 9월, 화성(華城, 수원성)을 완성했다. 대단한 추진력이지 효성이자. 정약홍의 거중기가 축성작업에 위력을 발휘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ang@hanmail.net), 사진=최진현(사진작가)

건릉(健陵)

건릉은 조선 22대 정조와 그의 부인 효의왕후 김씨의 무덤이다. 경기 화성시 태인면 안령리 1-1에 있다. 용릉과 함께 사적 260호.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조선 후기의 황금문화를 이룩하였다. 건릉은 현릉원의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효의왕후가 죽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효의왕후와 합장하였다. 무덤은 한 언덕에 2개의 방을 갖추었으며 난간만 두르고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용릉의 예를 따랐다. 흠이 없는 자리인 혼유석이 하나만 있으며, 용릉과 같이 8각형과 4각형을 조화시켜 석등을 세웠다. 문무석은 사실적이며 안정감이 있는 빼어난 조각으로 19세기 무덤 석물제도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다. 용건릉 - 면적 83만9669㎡ (25만4000평)



정조의 건릉 전경.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충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졸	CEO	청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직	구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서울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주시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최경희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인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수원
임인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제	금융직	서울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이영택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제	공무원	서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배병인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문은중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졸	회사원	부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원	진해시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충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박현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원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자영업	충청북도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조리사	경기도
김진목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구
서정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7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65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업	충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서울
김진혁	1964년생	160	초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서울
박성준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인천
전인덕	1965년생	157	대학	농업	전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서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대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졸업	충북
강종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전북
손중현	1971년생	172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졸	교육직	서울
장천석	1965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공무원	충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충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사원	서울

현대불교신문 독자 인연찾아주기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